

세월호 이후 방송뉴스의 해상안전 보도

- 그곳에 정부는 없었다 -

- 공공미디어연구소(이사장 양문석)는 9월 5일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사고를 다룬 방송뉴스를 분석했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가 해상안전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언론은 관련 사항을 잘 감시하고 있는지, 시청자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 돌고래호 사고는 세월호 사고를 닮고 있다. jtbc의 경우는 ‘세월호 닮은꼴’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컨트롤 타워 부재, 사고 대처 미흡, 체계적인 안전관리 부재, 재난사고시 인명구조 시스템 미흡 등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주었다.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급하게 보도했으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가 주를 이뤘다.
- 사고 이후 박근혜 정부는 초동 대응 실패,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했다. 수사기능은 경찰청, 해양구조 분야는 국가안전처로 이관시켰다. 돌고래호 사고에서도 해경은 등장한다. 돌고래호 역시 체계적인 안전관리 부재로 나타난 사고였다. 세월호 사고 이후 보다 재난사고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지만, 정부는 그러지 못했다.

- 사고의 책임은 해경과 안전불감증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귀속됐다. 이를 부추기는 것은 당연히 언론이다. 공공미디어연구소는 5일간의 방송뉴스를 분석하여 세월호 이후 돌고래호 사고가 가져다주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했다.

1. 분석방법 및 분석대상

- 분석기간: 2015년 9월 6일 ~ 9월 10일(5일)

- 분석대상

- 각 방송사의 저녁종합메인뉴스의 돌고래호 전복사고 관련 뉴스보도

	KBS 뉴스9	MBC 뉴스 데스크	SBS 8뉴스	TV조선 뉴스쇼판	jtbc 뉴스룸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합계
개수	20	18	17	25	26	17	29	152
(%)	(13.2)	(11.8)	(11.2)	(16.4)	(17.1)	(11.2)	(19.1)	
	55 (36.2)			97 (63.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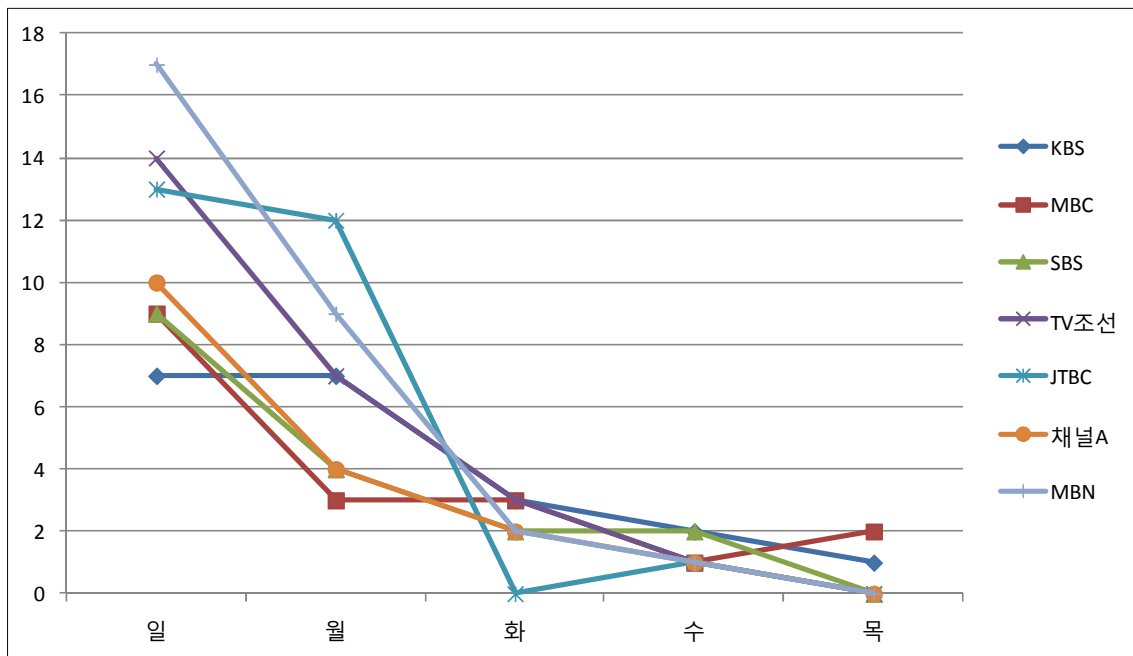
2. 분석결과

- 사건의 개요

- 9월 5일 저녁 7시 추자도를 떠나 전남 해남군으로 향하던 낚싯배 돌고래호가 30분 뒤 연락이 끊겼다. 그리고 11시간 뒤인 일요일 새벽 6시 30분경 추자도 남쪽 인근 해상에서 뒤집힌 채 발견됐다. 돌고래호 전복사건은 작년 4월 세월호의 기사감으로 읽힌다. 관계부처의 안이한 대응, 해경의 수색 불발은 해상안전과 관련한 여러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다.

○ 요일별 보도빈도

- 사건은 토요일 저녁에 발생했고, 일요일 뉴스에 보도된다. 방송사 모두 관련 보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월요일을 지나면서 보도 수는 급격히 줄어든다. 목요일에는 KBS(1건)와 MBC(2건)만 보도를 했고, 나머지 방송사는 보도하지 않았다.



- 9월 7일(월) 허위승선자의 거짓말로 인해 해경이 초동 조치에 미흡했다는 SBS의 보도가 나온 이후, 사고의 원인은 안전불감증으로 돌려지고 해상안전과 관련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라졌다. 이후 보도 건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제주 추자도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의 해경 초동조치가 늦어진 데는 승선원 명부에 이름은 올랐지만 실제 탑승은 하지 않았던 한 낚시꾼의 거짓말이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9월 7일, 허위승선자 관련보도 중.

○ 사고의 책임귀속 관련보도

- 돌고래호 사건은 관계부처의 안이한 대응, 언론의 오보, 수색과정에서 혼선 등 정부 시스템의 문제였고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재였다. 그러나 언론은 돌고래호 사건을 정부의 전반적인 시스템관리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는다. 해경의 미흡함과 돌고래호의 준비소홀과 같은 곳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해경관련	돌고래호	안전불감	기상관련	없음	Total
KBS	3 (9.7)	4 (14.3)	3 (13.0)	2 (15.4)	9 (13.4)	21 (13.0)
MBC	3 (9.7)	5 (17.9)	4 (17.4)	2 (15.4)	5 (7.5)	19 (11.7)
SBS	4 (12.9)	2 (7.1)	3 (13.0)	2 (15.4)	6 (9.0)	17 (10.5)
TV조선	2 (6.5)	3 (10.7)	4 (17.4)	1 (7.7)	15 (22.4)	25 (15.4)
jtbc	7 (22.6)	7 (25.0)	3 (13.0)	1 (7.7)	11 (16.4)	29 (17.9)
채널A	5 (16.1)	3 (10.7)	3 (13.0)	2 (15.4)	6 (9.0)	19 (11.7)
MBN	7 (22.6)	4 (14.3)	3 (13.0)	3 (23.1)	15 (22.4)	32 (19.8)
Total	31 (100.0)	28 (100.0)	23 (100.0)	13 (100.0)	67 (100.0)	162 (100.0)

- * 중복 사례 포함
- * 해경관련: 해경의 초동대처 미흡, V-PASS 오작동
- * 돌고래호: 악천후에서 무리한 항해, 안전규칙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 * 안전불감: 낚시배 안전규칙 소홀, 해상안전 인식 부재
- * 기상관련: 악천후, 양식장 그물에 걸림
- * 없음: 사고관련 원인 규명 없음

- 책임귀속 보도를 보면, 해경관련(31건), 돌고래호(28건), 안전불감(23건), 기상관련(13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악천후 속에서 돌고래호가 무리하게 운행했으며, 배에 있던 사람들은 구명조끼조차 입고 있지 않았다. 배가 전복된 후 신속히 해경이 구조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로 설명할 수 있다.

- 따라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돌고래호과 해경으로 돌려지게 됐다. 그러나 왜 해상안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지 발생 후, 어떠한 시스템이 작동해서 피해자들은 구조해야 하는지에 관련한 보도는 없었다. 단순히 사건과 관련해서 비난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선정하고 비난하는 식의 보도태도만 있었다.

“해경은 경비정 30여 척을 투입해 밤샘 수색을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도 놓쳤습니다.” MBC, 9월 6일.

“안전 불감증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악천후 속에 무리한 운항을 하던 낚싯배에 승선자들 상당수는 비에 젖어 축축하다면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SBS, 9월 6일.

“전복된 돌고래호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승객, 탑승자 명단에도 없는 탑승자, 관할 지자체의 검사 문제까지 또 다시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TV 조선, 9월 6일.

○ 사고 대책과 관련하여

- 돌고래호 사건 보도와 관련해서 보다 큰 문제는 대부분의 언론이 핵심을 피해가는 이른바 ‘무보도’로 일관한다는 점이다. 사건의 원인규명에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더 중요한 향후 대책관련 보도는 없었다. 기껏해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만 전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민안전처 장관의 전화보고를 받고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V 조선, 9월 6일.

“황교안 국무총리도 관계 부처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실종자 수색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TV 조선, 9월 6일.

“박 대통령은 또, 국민과 실종자 가족, 사고 관계자들에게 실종자 수색 상황 등 이번 사고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9월 6일.

3. 보도형태 정리 및 합의

- 전체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상파와 종편 뉴스 모니터링에 있어서 ‘해상 사고’라는 원초적 사고와 ‘대처 미흡’이라는 파생적 사고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종편들은 해상 사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해경, 사고의 원인은 피해자들에게 두는 ‘안전불감증’ 프레임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 표현에 있어서는 유가족들의 적대적 반응이나 망자에 대한 예의 때문인지 ‘냇싹배들이 이렇더라’하는 식의 간접적 방식의 비판을 하고 있다.
- 돌고래호 사고와 관련해서 뉴스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돌고래호 난파’, 두 번째는 ‘해경의 구조 실패’, 세 번째는 ‘사고 후속 대응’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뉴스들이 돌고래호 난파와 사고 후속 대응에 있어서 큰 관점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언론에서 해경에게 개별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식의 보도는 많지 않았다. 대체로 초기대응에 미흡했던 점과 V-PASS를 꺼놓은 해경을 비판했고, 표류예측 시스템의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다만 jtbc만이 해경의 능력대응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았다.
- 돌고래호 관련 방송뉴스의 보도에 있어서 지상파와 종편 채널의 비교에 있어서 큰 차이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다만 각 방송사별로 미세한 보도의 지향점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가장 큰 관점의 차이는 돌고래호 사고를 세월호 사고와 어떻게 연계(association) 시키는가에서 발견된다.
- 돌고래호 침몰을 세월호 사고와 연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뚜렷했던 방송사는 해경의 문제점을 비교적 강하게 비판했던 jtbc였다. jtbc는 첫 소식을 전하면서 ‘세월호 닳은꼴’이라는 기호를 사용했는데, 이러한 기호는 시청자들

로 하여금 안타까움과 분노를 다시 환기시켰으며, 아울러 세월호 사고 이후로 우리나라의 재난 대책 시스템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돌고래호 침몰 관련 보도에서 해경이나 재난 시스템을 비판하는 보도는 많지 않았다. 특히 V-PASS의 경우에 조난사고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찮아서 꺼둔 해경에 대한 비판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 물론 그 비판 수위는 모든 언론에 비교적 강력하게 나타났지만, 관련 후속 보도는 없었다는 점에서 환경감시 기능이 미흡해 보인다. 만일 보도 내용대로 지나치게 센서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해당 제품의 하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납품에 비리가 있었을 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